

## 곤충이야기-노린재

배추농사를 짓다보면 여러 종류의 벌레들을 만나게 되는데 징그럽게 생긴 나비의 애벌레류와는 달리 등에 흑색광택과 영문자 와이무늬를 가지고 있는 화려한 곤충이 있다. 그게 바로 비단노린재이다. 배추농사에는 해를 끼치는 해충이지만 무늬의 아름다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는 그런 곤충이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잡아서 관찰하기는 꺼려지는 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독한 냄새가 나기에 노린재라는 이름이 붙었나보다. 딱정벌레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냄새를 발산하지만 노린재에 비교해서는 그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노린재종류는 냄새샘을 가지고 있어 적을 만나면 특유의 냄새를 풍겨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식물에 물려드는 노린재들은 화려한 색깔과 무늬를 지니고 있다. 참나무나 목련나무 등에 생활하는 광대노린재는 금속광택의 녹색과 홍색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미나리과 식물에 모이는 홍줄노린재는 이름과 같이 이쁜 홍줄이 세로로 나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노린재를 소개하자면 분홍다리노린재를 소개하고 싶다. 느티나무나 단풍나무에 기생하여 살고 있는데 그 등판은 밝은 녹색의 금속광택을 나타내고 있고, 머리 바로 밑으로 사람의 어깨부분과 같은 그 끝 부분이 뾰족하게 솟아있어 턱시도를 입은 멋진 신사를 연상케 하는 노린재이다. 그 외 이쁜 노린재로 크기는 작지만 광택나는 진한 보라색 바탕에 여러 흰점이 조화를 이룬 등판을 가진 검보라노린재가 있다.


콩과식물들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들도 있는데 허리노린재과에 속한 노린재들이다. 매년 콩밭에서 시골가시허리노린재를 만나는데 성가실 정도이다. 콩순이나 익기 전 콩깍지에 해를 끼친다. 그 외 톱다리 개미허리노린재, 장수허리노린재, 넓적배허리노린재 등이 있는데 풀잎에 모여드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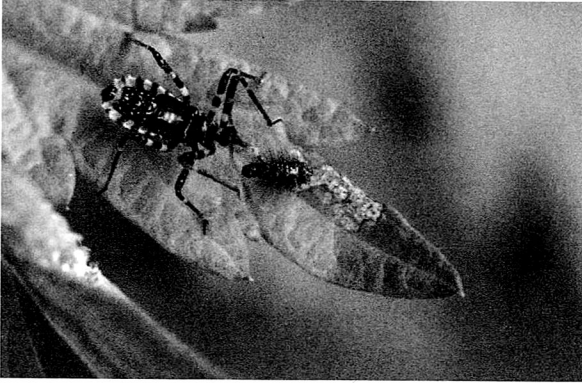
린재들과는 달리 대부분 갈색바탕에 투박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 화려함과는 먼 종류들이다. 노린재들은 해충으로 분류되어 기피하는 벌레이며, 뱀새나는 벌레로써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무당벌레 중에서 식물을 해치는 28점무당벌레가 있는 가하면 진딧물을 잡아먹는 칠성무당벌레가 있듯이 식물을 숙주로 해서 사는 노린재들과는 다르게 애벌레류나 약한 곤충의 체액을 먹고 사는 노린재들이 있다. 바로 침노린재과에 속한 노린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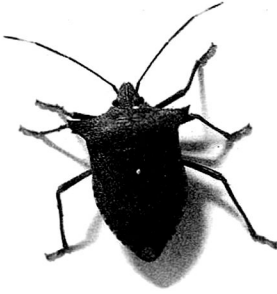
침노린재는 다리무늬침노린재, 노란침노린재, 고추침노린재, 홍도리침노린재 등이 있는데 주둥이 부분에 긴 침을 가지고 있고 그 침으로 나비의 애벌레나 약한 곤충을 찔러 체액을 빨아먹고 산다. 호주의 매쿼리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침노린재 중에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나 곤충으로 위장하여 거미줄을 흔들어 거미가 다가오면 침을 거미에 찔러 체액을 먹는 종류도 있다고 한다. 곤충이 위장술을 한다는 것은 특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보건대 단순한 벌레로 뱀새나서 너무나 싫은 대상으로 치부 할 것만은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풍과 황사를 타고 날아온 꽃매미의 천적으로 침노린재와 사마귀, 박새, 맴시벌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꽃매미는 가죽나무와 포도나무를 해치는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벌레이다. 농촌진흥청은 천적의 대량사육으로 꽃매미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 천적 중에 침노린재도 들어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남방계의 곤충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정착하는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꽃매미 외에도 이름도 모를 새로운 벌레들을 논과 밭에서 적잖이 발견하게 되는데 곤충들은 그 분포에 따라 환경지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어느 곤충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존재들이다. 침노린재는 병든 사람에게 침을 놓듯이 병든 자연에 침을 놓는 존재들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다리무늬침  
노린재



붉은다리  
노린재



광대노린재